

FTA 쟁점 사안과 향후과제

2012. 6. 15

16:00~17:30 국회의정관 105호



포럼 순서

- 발 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성한경**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장

목 차

- 1 FTA 추진현황
- 2 FTA의 기대 효과
- 3 한중FTA 현황 및 협상전략
- 4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 5 FTA 보완대책의 합리적 운영 방안

- 1 FTA 추진현황

FTA 개념 및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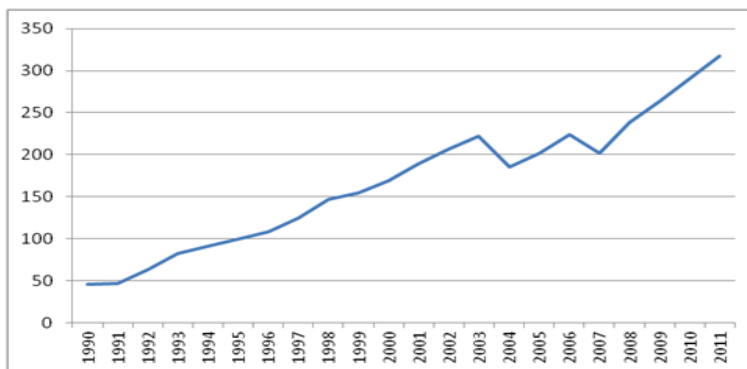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FTA는 회원국간의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교역상의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협정
- EU :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설립으로 시작된 EU 통합은 경제 및 정치통합을 심화하여 궁극적으로 동서유럽의 통합에 의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지향
- NAFTA : 미·캐나다간 FTA(89년 발효), 미·멕시코간 무역 및 투자 쌍무협정(85년)이 3국간의 NAFTA(94년 발효)로 발전. 미국은 수출 및 투자 증대를 통해 자국경제 활성화의 도모와 이미 경제통합을 이루고 있었던 유럽을 견제
- AFTA : 지난 96년 정치 외교적인 목적 하에 창설된 ASEAN 6개국은 90년대 후반 10개국으로 확대되었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03년 1월 AFTA를 출범시킴

5

전세계 FTA 현황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총계	특혜무역 교역비중
현재 발효중인 FTA (2011년 12월)	317	50% 이상 (2007년 기준)

- 최근 특징 : 아시아 지역 FTA 확산
 - 타결건수 : 7(1991) → 45(2000) → 113(2010.1)
 - 협상진행 : 59개

6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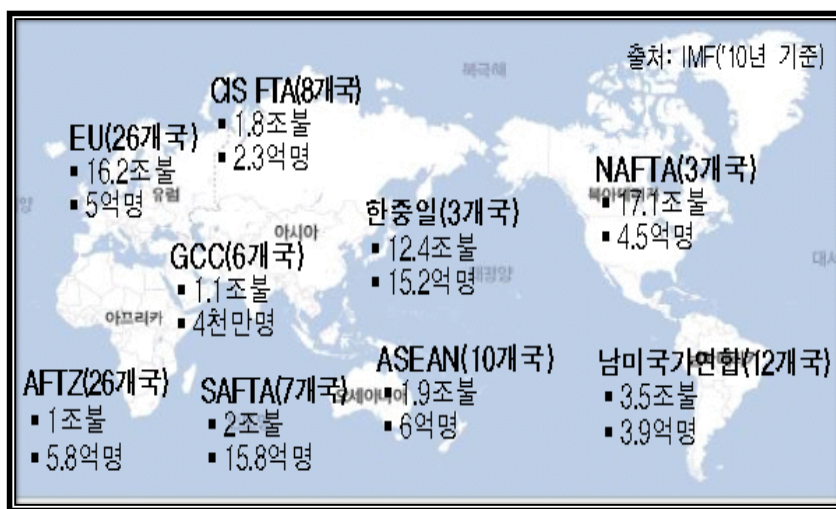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국가	체결수	기체결 대상국	추진 및 검토 대상국
미국	17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도미니카, 한국 등	태국, FTAA, SACU, 안테안 등(이상 추진), 대만, 아세안, 일본 등(이상 검토)
EU	35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등	Mercosur, 아세안, 대만, 싱가포르, 이란, GCC 6개국
칠레	41	캐나다, 멕시코, Mercosur,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EU, 미국, EFTA, 한국 등	바레인, 호주, 싱가포르-뉴질랜드(P3), 인도
멕시코	42	NAFTA, G3,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칠레, EU, 우루과이, 일본 등	FTA 모라토리엄 이후 한국 등과 협상재개
중국	10	아세안,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한국, 인도, 호주, 한중일, GCC, 일본, 남아공
일본	9	싱가포르, 멕시코, 아세안, 칠레 등	한국, 대만, 캐나다
한국	8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MERCOSUR

7

전세계 경제블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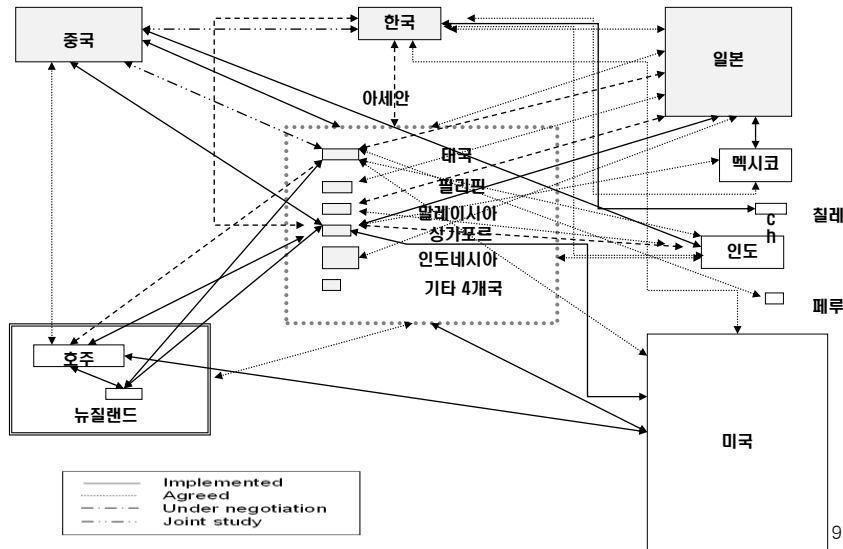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8

동아시아 FTA 현황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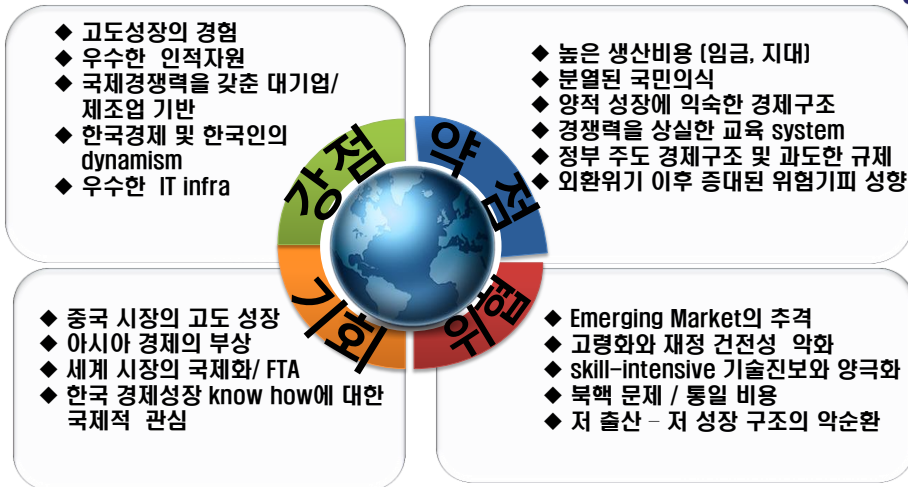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FTA 현황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현황	대상국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타결	터키
협상 중	중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GCC,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협상 중단	일본
공동연구 및 검토	한중일,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한국경제의 SWOT 분석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1

우리나라의 FTA추진 필요성 -1

- 해외시장에서의 상대적 불이익 극복 : 한국이 FTA 등 지역주의에 불참하는 경우 기회비용은 최소한 GDP의 1.3%와 수출의 19.2%로 추정
- FTA를 통한 무역 및 투자 기회 확대 :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성장의 관건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0.58로 추정)
- 특정 무역이익의 추구 : DDA 협상에서 추구하기 어려운 특정 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 수량규제의 철폐와 같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도 FTA가 유리

12

우리나라의 FTA추진 필요성 -2

- 경제 효율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 성장을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외적충격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 추진이 요구됨
-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 :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 [한미 FTA, 한중 FTA]
- BRICs 등 신흥 유망시장 진출 확대 기회와 안정적인 자원 확보 : 수출시장으로서 BRICs 국가들의 비중은 1999년 11.8%에서 2003년 21%로 크게 상승했으며, 반면 미국(20.5→17.7%), 일본(11.0→8.9%)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시장의 중요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음

13

2

FTA의 기대 효과

14

FTA의 경제적 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5

관세철폐 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모형

- ▶ 경제 전반의 산업별 주체별 소비, 투자, 생산, 교역 등을 모형화(방정식 체계) + 각 변수의 실측치 [자료]
- ▶ 산업연관효과 및 최적행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 방대한 자료가 필요
- ▶ 상품 관세 철폐 시나리오 구성

◆ 부분균형 (PE) 모형

- ▶ 특정 부문이나 산업, 품목의 영향 분석에 사용
- ▶ 현재 관세율 구조와 가격탄력성 및 대체탄력성 이용
- ▶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적어 최신자료 확보가 용이
- ▶ 비교적 산업연관효과가 적은 산업이나 품목효과에 적절

16

비관세장벽 및 규범 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국가(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빈도수

분야	북미	EU	일본	대양주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수입규제(8)	3	0	1	1	7	6	4	4
통관(15)	5	3	2	1	8	5	8	7
무역규제(3)	1	1	1	2	1	0	2	2
정부조달(8)	4	1	1	5	3	2	6	7
기술장벽(15)	4	5	9	1	8	5	7	6
지식재산권(3)	1	0	0	0	3	3	1	3
경쟁(2)	1	0	0	0	1	2	2	1
계(68)	19	10	14	10	31	23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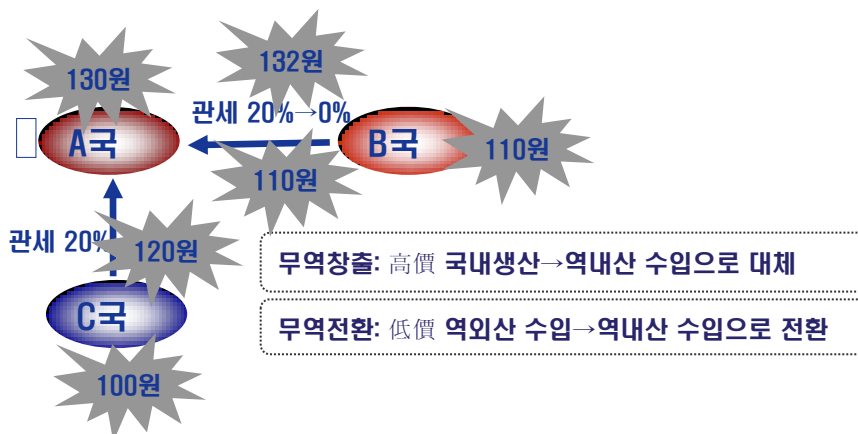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2006), USTR(2007)과 기타 「국별 통상장벽 보고서」 등에서 정리.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2007)

17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 다만, 체결국에 따라 합의내용이 달라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스파게티보울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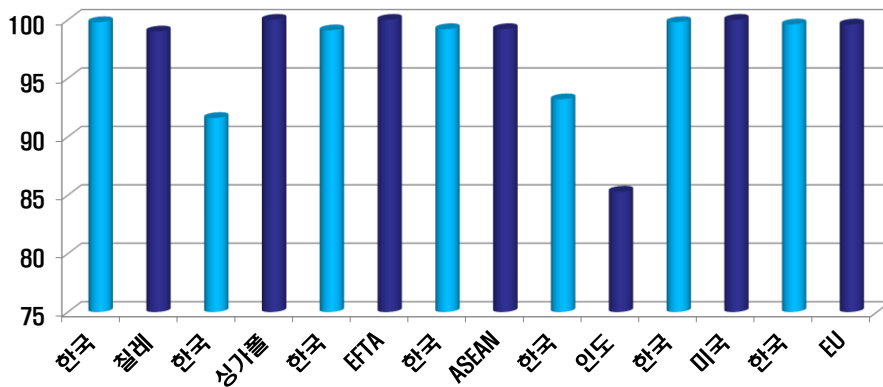
18

한국의 FTA 양허수준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기체결 FTA의 양허수준 (WTO 90% 이상 권고)

평균 양허율 97.1%



19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서비스 부문별 관세상당치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미국	70.72	35.46	33.9	8.9
영국	105.98	72.72	60.35	19.91
독일	25.77	47.62	40.91	11.45
일본	46.02	78.89	42.97	66.34
한국	95.34	102.31	70.78	86.62
중국	200.54	187.04	197.58	170.2
전세계 평균	111.18	102.43	91.43	47.47

자료: 서진교 외(2009)

20

외교안보적 기대 효과

- FTA는 경제적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냉전시대의 안보동맹관계와 비유될 수 있음
- 미국이 미-요르단 FTA, 미-이스라엘, EU-남아프리카 경제협정(TDCA)을 서둘러 추진한 것은 정치적 유대 강화 및 안정을 목적으로 함
-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맺은 것은 인도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음
- 한미FTA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 한중FTA가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

21

21

기체결 FTA의 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교역증대

-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비중(32.6% 90년대 → 50.4% 2000년대)
- ▶ 교역의 고용창출 기여 비중 24.4% (1975~2009)

FTA 상대국	상대국과의 교역증가율 [%]	전세계와의 교역증가율 [%]	FTA 발효연월	비교 년도
칠레	359.7	189.7	2004년 1월	2003/2011
싱가포르	134.2	97.9	2006년 3월	2005/2011
아세안	102.1	70.1	2007년 6월	2006/2011
인도	69	57.2	2010년 1월	2009/2011

22

주요국의 경험 - 1

-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 162% 증가
-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1993년 429억 달러에서 2002년 1,430 달러로 급증
-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 수출 393% 증가
- 멕시코는 NAFTA 체결로 폐소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1995년 -6.2% 성장률에서 1996년 5.2%, 1997년 7.0%의 성장률 기록
- 동유럽 국가의 국내 총생산은 1990 - 95년 사이 연평균 1%씩 감소하였으나, EU로의 편입 이후 2002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달함

23

23

주요국의 경험 - 2

- NAFTA출범 이전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약 40억 달러에서 NAFTA출범첫해에 150억 달러 기록
- 동유럽 국가들의 EU 편입 이후 신규가입국에 대한 투자는 269% 증가
- 투자장벽 제거 및 우회수출에 따라 역내외국가로부터 FDI증가
-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체결시 FDI는 총 42-70% 정도 증가
- 실제로 NAFTA출범 이후 캐나다의 대미투자는 2배 가까이 증가

24

24

FTA 활용률 분석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한-칠레 FTA (94~97%)를 제외하고는 낮은 활용률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수입 활용률	94.40%	26.80%	34.90%	52.40%	47.70%
	[2004.4 ~2011.3]	[2006.3 ~2010.2]	[2006.9 ~2009.8]	[2007.6~ 2011.5]	[2010.1 ~2011.8]
수출 활용률	96.90%	-	-	8.90%	25.00%
	[2004.4 ~2007.12]			[2007.6 ~2010.5]	[2010.1 ~2011.8]

25



3 한중FTA 현황 및 협상전략

26

한중FTA 추진 경위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2005~2006년간 민간 공동연구 진행
- 2007.3월~2010.5월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 2010.9월부터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 진행
- 2012.1.9 한·중 정상회담시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 해결키로 합의
- 2012.2.24 한·중 FTA 공청회 개최
- 2012.5.2. 한·중 통상장관 회담계기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27

한중 FTA 추진 배경-내수시장선점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중국은 3월 전인대에서 수출 의존형 성장정책을 내수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간재 위주인 우리 수출 방향 전환 모색이 필요
 - 우리의 대중수출중 가공무역 비중은 51.4%에 달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동조현상이 진행중이므로 내수시장 진출을 통해 방향전환 필요
 - ❖ 금년 1/4분기의 경우,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둔화(21.3→6.9%)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대폭 감소(16.7→3.7%)
 - 이는 우리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약 10% 정도이나, 내수시장 점유율은 5.9%에 불과한 등 내수시장 진출의 상대적 부진에 따른 결과
 -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은 관세환급을 받지만, 내수시장용 수출은 관세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FTA 효과가 클 전망

28

한중 FTA 추진 필요성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국내 우리기업은 누적기준 2위, 기업수 기준 1위의 투자 대상국
 -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약 2만3천개(우리 제조업 300대 기업중 70%가 진출)
 - 우리 수출 상당부분이 중국내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 수출선 보호를 위해서도 중국 진출 우리기업 보호가 긴급
 - ❖ 2007년 KIEP 조사결과 우리수출의 40%가 중국내 우리기업 대상
-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동아시아 역내 통합논의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 기체결된 한·ASEAN FTA 및 한·중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 확보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로 성장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
 -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공단 생산제품을 한·중 FTA 대상으로 인정

29

한중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 우리나라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 예상
 - 중국 GDP 0.6%, 후생 0.6%, 총수출 3.7~3.9%, 총수입 4.9~5.0% 증가 예상
- 한·중 FTA 공청회시 KIEP 발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 후 5년내 0.95~1.25%, 10년내 2.28~3.04% 증가
 - 후생은 발효 후 5년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

30

한중 FTA 진행 방향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가. 1단계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협상 분야 모델리티 도출
 - (상품)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
 - ❖ 품목군별 비율(%) 및 민감성 처리방안 등은 1단계 협상에서 정해질 예정
 - (여타 분야)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은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signalling)하여 단계 협상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 작성

나. 2단계 협상

-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 진행
-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분야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추진 31

우리나라의 목표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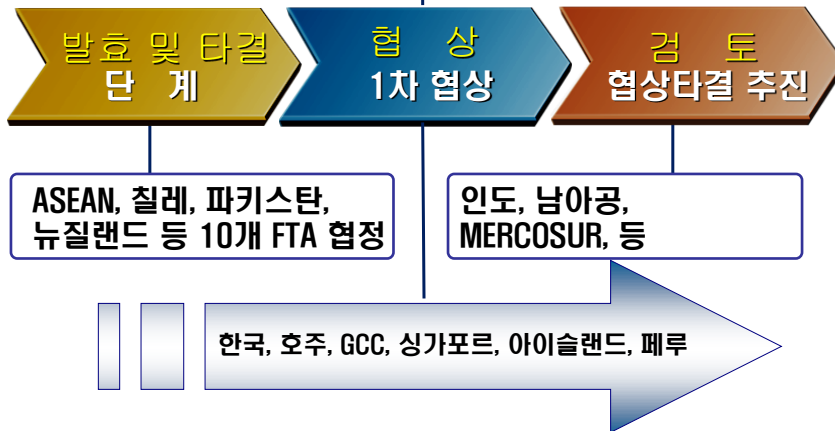
-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높은 자유화를 추구하여 FTA로 인한 우리 국익을 극대화
 - 민감분야 보호와 경제적 실익 극대화간 최적의 균형점 도출을 위해 단계별 협상 추진
-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비관세장벽 등이 포함된 포괄적 FTA 추구
 - 서비스 장벽의 완화·철폐, 투자 자유화 촉진 및 보호 강화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
-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채널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 경제관계 구축
 -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양국 통상현안을 안정적·제도적으로 관리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등) 제품을 한·중 FTA 대상으로 포함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

32

중국의 전략-1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중FTA는 제조업 강국을 상대로 한 유일한 FTA 논의



33

중국의 전략-2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입장에서 본 한중 FTA

- 동북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
-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미, 일, 한)
- 한중 FTA는 제조업 강국을 상대로 한 유일한 FTA

추진전략의 특징

- 지도부의 적극성 Vs. 상무부의 우려
- 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관심
- 낮은 수준의 체결에도 관심
[효과 극대화보다 피해 최소화 우선]



34

정교한 협상방안 개발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중 관계의 특수성 및 고려 사항

특수성	상황	FTA 협상에서 고려할 점
높은 의존도	최근 수출 둔화	중국의 수입대체 진전을 극복할 방안
중간재 중심	광범한 관세감면	실질관세율의 수준을 고려한 협상
경쟁구조	일본, 대만 경쟁	비대칭적 가격경쟁력 효과를 확보할 필요
많은 투자기업	최근 경영 악화	투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추진
농수산업 유사성	피해예상	한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 예외/민감 품목화

35

포괄 범위에 대한 합의 필요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FTA 포괄범위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미	한-EU
관세철폐	0	0	0	0	0	0	0
비관세장벽				△	△	0	0
수량제한	0	0	0	0		0	0
세이프가드	0	0	0	0	0	0	△
원산지	0	0	0	0	0	0	0
투자	0	0	0	0	0	0	0
관세행정	0	0	0	0	0	0	0
서비스	△	△	△	0	0	0	0
MRA	△	0	0	△		0	△
SPS	0	0	△	△		0	0
TBT		0	△	△		0	0
정부구매	0	0	△			0	0
지적재산권	△	△	△	0	0	0	0
경쟁	0	△	△		0	0	0
분쟁해결	0	0	0	0	0	0	0

36

한중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나리오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협상의 범위	
		More comprehensive	Less comprehensive
관 세 양 하	Higher Quality	한국의 생존전략 효과(이익과 충격) 극대화 실질관세율 효과 미미(한국입장) 협상의 장기화/격렬화 비용 고려	여타 협상의제 단순화 실질관세율 효과 미미(한국입장) 치열한 상품분야 협상 Give and take 공간 협소
	Lower Quality	중국측 제도/관행 개선에 주력 업계요구 반영한 맞춤형 협상 가능 중국내 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국내산업 고도화 강제 효과는 작음 제도 개선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체결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 단기간에 쉬운 협상 실익을 거둘 공간이 작음 [한국측] 동북아 경제통합의 상징성 중국이 가장 선호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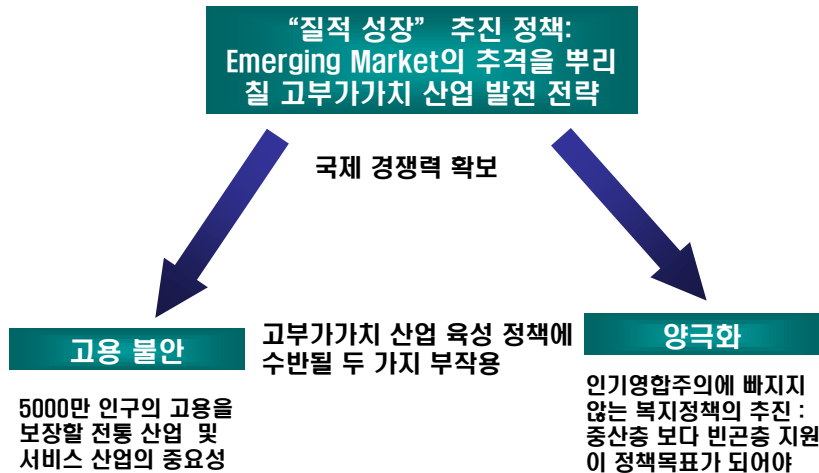
4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38

우리나라의 FTA 추진목표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9

제도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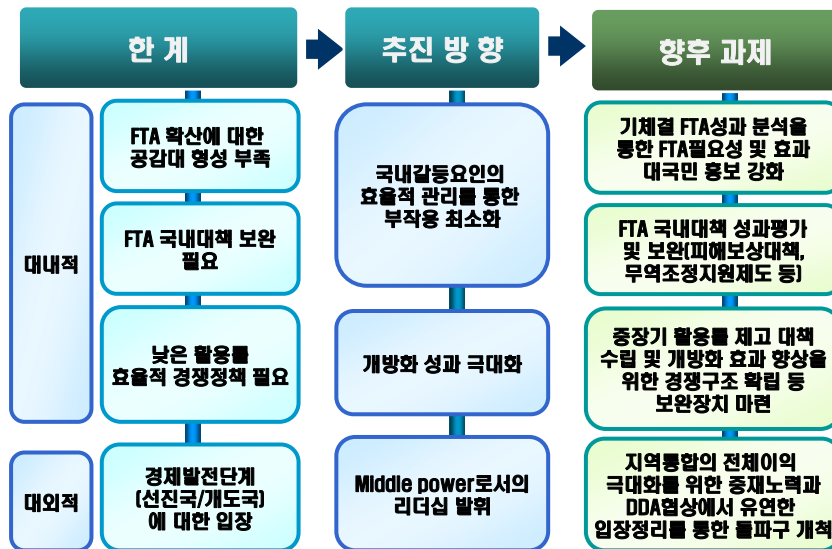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FTA는 전반적인 시장개방정책의 하나의 정책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 FTA는 개방화 정책 중 현 시점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진
 - ▶ FTA 체결 자체 만으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 시장개방에 동반한 다양한 국내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동반해야 효과성이 담보될 것임

40

FTA 추진과제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41

현행 통상절차 규정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약에 관한 절차규정
 - ▶ 대외경제장관회의에 FTA 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심의·의결
 - ▶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에 FTA 추진 기본전략의 타당성 검토 요청
 - ▶ 추진위원회에서 타당성, 추진방향 등 심의
 - ▶ 공청회 개최 (14일전 관보게재)
 - ▶ 대외경제장관회의에 FTA 협상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 요청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012년 7월 18일 발효)
 - ▶ 외교부장관은 협상개시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외교부장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42

FTA 효율적 이행방안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주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 주요 시장에서는 수출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소폭이라도 관세가 줄어드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어 시장 선점 가능
- 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제고 노력 필요

상호보완적인 산업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산업 구조상 경쟁력이 있는 부문들이 서로 보완관계인 경우 국제적인 분업으로 효율성이 증가
- 나아가 상호 보완적인 부문이 결합될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어 제 3의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

43

홍보 및 제도 정비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 및 그 성과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 최소화
- FTA가 정치쟁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 투명한 정보 제공 필요

FTA 활용극대화를 위한 제도 정비

- FTA 발효자체만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해 FTA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필요

44

〈참고〉 FTA 주요 쟁점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쟁점 사항

ISD 제도

관세철폐 효과

농업피해

멕시코 외환위기와 NAFTA

고용창출효과

FTA 찬성

- 1 투자자 보호제도
- 2 중소기업 수출증가
- 3 2조 3천억원
- 4 산업구조조정 실패
- 5 50만개 일자리창출



FTA 반대

- 1 정책주권상실
- 2 양극화 심화
- 3 9조원
- 4 NAFTA 체결
- 5 일자리 창출 미미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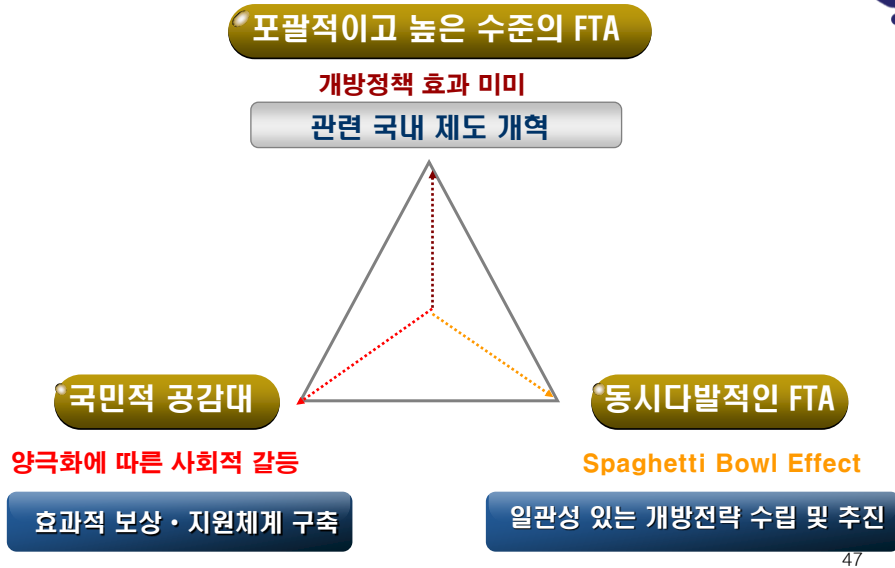
5

FTA 보완대책의 합리적 운영 방안

46

FTA 보완대책의 합리적인 운영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47

FTA 피해지원제도의 문제점

- FTA 피해지원제도는 농어업에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
 - 기존 FTA 이행기금은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성격이 강하며, 효율적인 대내 협상 수단으로서는 한계
- 무역조정지원제도 틀 내에서 농어업지원제도 운영 필요
 - 개방관련 농어민 지원대책의 합리적 운영은 도덕적 해이 등 비효율 개선에 기여



48

농수산업분야 국내보완대책 현황

- 2003년 DDA, 한·칠레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119조원의 농업 및 농촌종합대책 수립
 - 수산업도 12.4조원 규모의 수산업 및 어촌 종합대책 수립
 - 이 가운데 한·칠레 FTA 대책 기금은 1.2조원 (시행기간 2004~2013년)
- 2007년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10년간(2008-2017년) 총 21.1조원(한·미 FTA로 인한 15년간 농수산업 예상 생산감소액의 2배 수준, 기존+추가)을 지원하고, 농업분야에 총 20.4조원, 수산업분야에 총 0.7조원으로 나누어 지원

49

농수산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재원구성

(단위: 억 원)

구 분			농업	수산업	계
지원 기간별	2008-2013	기존	69,367	2,273	71,640
		증액	51,220	2,409	53,629
	2014-2017	추가	83,040	2,580	85,620
총 계			203,627	7,262	210,889

50

피해지원제도의 개편 방안

- 피해지원제도는 한시적(time-bound)이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분명하게 설정되도록 일몰조항 (예: 3~5년 기간) 마련
- FTA의 손익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구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
 - 특히 피해분야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수혜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관리
- 피해지원 및 구조조정 촉진정책이 WTO 등 국제규범 및 우리 경제의 산업발전 비전과 정합성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검토

51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실천과제 추진방향

- 개방의 불리한 영향은 취약산업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바, 농어업 지역에 국한해서 지역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
 - 개방피해는 해당산업뿐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
 - ❖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정밀화학, 제약업, 정밀기기 등의 지역 밀집도가 높음: 정밀화학과 제약업은 경기도에 각각 37%와 65%, 정밀기기는 경기도에 34%, 서울에 13% 밀집
- 지역 단위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필요
 - 장기적인 지역 경제구조 개선에 기여하도록 설계
 - 프로젝트 공모방식 도입
 - 지역산업의 전환과 지역경제의 구조조정, 지역 간 격차해소 및 불균형 완화

52

지역단위 구조조정제도의 해외 사례

- EU는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지역·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창설
 - 유럽구조기금의 일부인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EU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 미국은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TAA(Community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운영
 - 미국의 지역공동체 TAA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틀 내에서 운영
-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금을 스스로 계획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공모방식이 널리 활용됨
 -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

53

전직지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과 실천과제 추진방향

-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기업 지원에 무게를 둔 산업정책 성격이 강함
 - WTO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논란과 형평성 문제 야기 가능
 - 노동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지 못해 개방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할 우려
-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
 - 첫째,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 역량 강화,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인프라 확충
 - 둘째,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직지원서비스의 민간 위탁 확대, 민간 고용서비스업체 육성
 - 셋째, 비교우위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54

전직지원 교육훈련제도의 해외 사례 및 기대효과

- 무역피해 실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미국과 유럽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피해 실직자들은 여타 실직자에 비해 노동시장 조정비용이 높음(OECD, 2005)
- 미국의 TAA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에 기여
 - 미국의 TAA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재취업율이 9% 정도 높음
 -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참가자는 비참가자에 비해 재취업율이 12% 정도 높음
- 개방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는 산업간 구조조정 원활화에 기여

55

